

ISO/TC 92 간사기관지정에 즈음하여

성시창 / 기획·인증실 과장

1. 머리말

올해 6월 국립기술품질원은 그동안 방재시험연구소가 수행한 국내 화재안전분야에 관한 다양한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를 인정, 방재시험연구소를 ISO/TC 92(화재안전)의 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연구소는 선진외국의 화재안전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국제적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여 국내관련 산업계, 학계 등에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구소는 1986년 설립이후 12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7개 정부기구 및 선진외국의 6개 선급협회로부터 건축자재, 선박용품 및 소방용품에 대한 공인시험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특히, 최근 제정 혹은 개정되었거나 제·개정 추진중인 선진외국의 화재 안전관련 시험기준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고에서는 우선 ISO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ISO/TC 92의 업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ISO의 현황

가. 설립배경

무역과 국제교류가 확대 발전됨에 따라 각국은 자유무역주의의 촉진을 위하여 점차 국제적 규격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1906년 국가간 교역량이 가장 많은 전기·전자부

야에서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를 설립하였다. 이후 1947년에는 상품 및 용역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증진 및 세계표준화를 추구하고자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비정부간 기구로서, 스위스 민법 제 60조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ISO는 기관명의 약자표기가 아니고 '동등하다'는 의미의 그리스어인 'isos'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현재 ISO의 공용어로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3개국어가 사용되고 있다.

나.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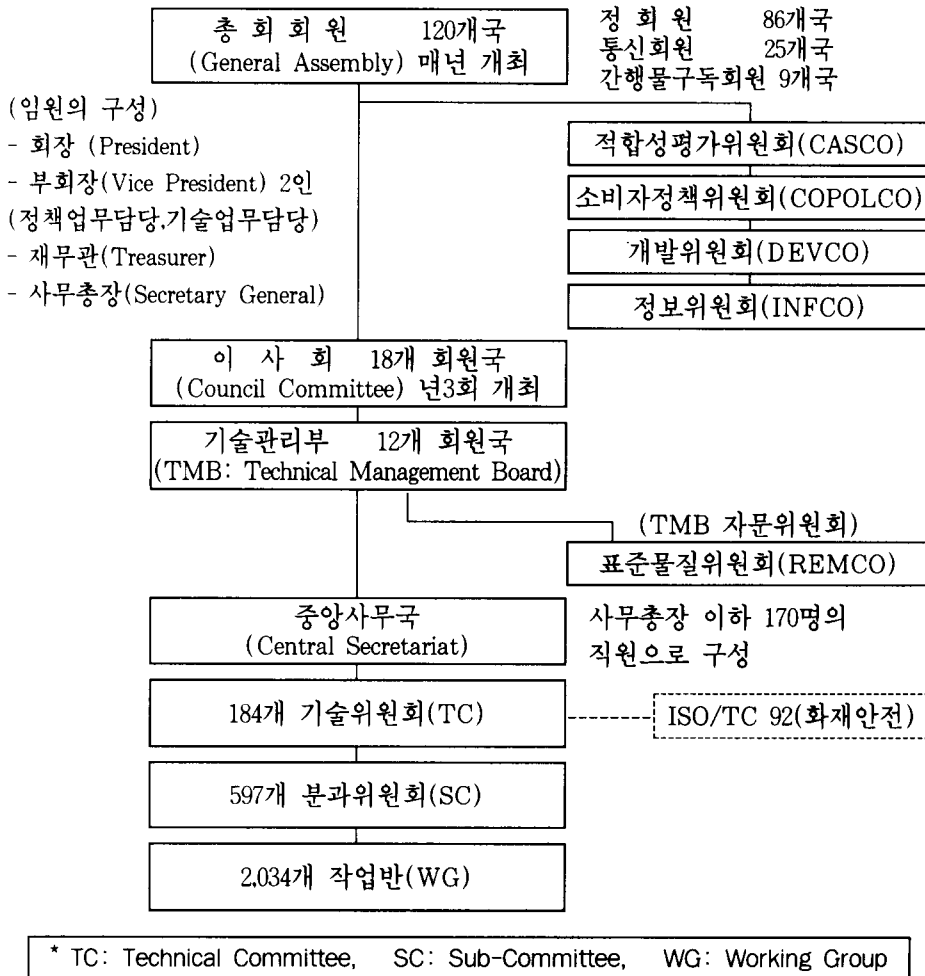
ISO는 각국별로 가장 대표적인 1개 기관만이 회원자격을 가진다. ISO의 회원자격은 정회원(member body), 통신회원(correspondent member), 간행물 구독회원(subscriber member)으로 구분된다. 통신회원과 간행물 구독회원은 투표권이 없고 일부 문서만 받아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당시 공업진흥청이 대표기관으로 가입하였고 현재는 국립기술품질원(KNITQ)이 한국의 대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1997년 1월말 현재 ISO조직은 [그림1]과 같다.

3. 국내기관의 ISO 참여 현황

가. 참여구분

ISO 정회원국은 ISO의 해당위원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정회원국은 회원자격의 종류(P-멤버, O-멤버)를 결정, 해당위원회의 간사



[그림1] ISO 조직

기관과 중앙사무국에 통보하고 통보와 동시에 회원자격을 획득한다.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P-멤버(Participating member) : 위원회 업무 및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규격안에 대한 투표의무가 있다.

② O-멤버(Observer member) : 해당 위원회의 수행업무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며 문서를 열람하고 코멘트 제출 및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나. 국내기관 참여 현황

우리나라는 국립기술품질원이 ISO의 기술위

원회(TC)에 P-멤버 또는 O-멤버로서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술위원회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국립기술품질원은 해당 기술위원회의 관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내기관을 선정하여 그 기관의 동의하에 해당 기술위원회의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1998년 현재 방재시험연구소가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참여하고 있는 ISO/TC 92를 비롯하여 모두 41개의 국내기관이 총 53개의 ISO 기술위원회에 국내간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참여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ISO/TC 국내간사기관 참여 현황

구 분	내 용	한국참여지위		국내간사기관
		P-멤버	O-멤버	
JTC 1	정보기술	○		한국산업표준원
TC 6	종이, 판지 및 펄프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17	강(Steel)	○		한국철강협회
21	방재 및 소화장비	○		한국소방검정공사
22	도로차량	○		한국자동차연구소
31	타이어, 립 및 밸브	○		대한타이어공업협회
33	내화물	○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35	페인트 및 와니스	○		한국페인트인크공업협동조합
38	섬유	○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45	고무 및 고무제품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46	정보 및 문서	○		한국산업표준연구원
47	화학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48	실험용 유리용기와 관련기구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51	수송용 팰리트	○		교통개발연구원
55	제재 및 제재용 목재		○	임업연구원 재료시험과
59	건축구조물	○		대한주택공사
61	플라스틱류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68	은행업무 및 관련 재무 서비스	○		금융결제원
70	내연기관	○		한국자동차공학회
71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및 PS콘크리트	○		삼표산업(주)
74	시멘트 및 석회	○		한국양회공업협회
89	목재판		○	한국합판공업협회
92	화재안전		○	한국화재보험협회부설 방재시험연구소
96	크레인		○	한국산업안전공단
98	건축구조설계		○	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계획연구실
99	목재 반제품		○	임업연구원 재료시험과
102	철광석	○		포항제철
104	화물컨테이너	○		한국컨테이너협회
110	산업트럭	○		한국자동차공학회
120	피혁	○		한국피혁수출조합
122	포장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130	그래픽기술		○	한국산업표준원
133	의류의 치수시스템 및 호칭	○		한국 의류시험연구원
146	공기의 질(Air Quality)	○		한국산업안전공단
147	수질	○		호남정유연구소

구 분	내 용	한국참여지위		국내 간사 기관
		P-멤버	O-멤버	
TC 149	자전거	○		한국자동차공학회
154	행정, 상업 및 공업용 문서 및 데이터 요소	○		한국EDIFACT표준원
159	인간공학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60	건물용 유리	○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162	문 및 창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165	목재구조물		○	한국목구조주택협회
184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한국자동차 표준시스템 연구조합
189	세라믹 타일	○		대한도자기공업협동조합
190	토양의 질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99	기계류의 안전성		○	기계안전자문위원회
200	고체폐기물	○		생산기술연구원
201	표면 화학분석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3	기술에너지 시스템	○		에너지 관리공단
204	교통정보 및 관리시스템		○	자동차 부품연구원
205	건물환경설계	○		건설기술연구원 건축계획연구실
206	파인세라믹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7	환경경영	○		품질환경인증협회
209	청정실 및 관련 제어환경	○		한국청정연구조합

4. ISO/TC 92 업무 소개

가. 설립배경 및 구성

ISO/TC 92는 건물 화재시 인명안전 및 건물 보호를 위하여 건축자재, 부품 및 구조물이 화재에 반응하는 특성을 측정하고 이의 시험적용을 위한 국제규격의 제정을 목적으로 1958년 설립, 운영되고 있다.

TC 92의 명칭은 1961년 이래 '건축재료 및 구조의 화재시험(Fire tests on building materials and structures)'을 1995년 5월 현재의 공식 명칭인 '화재안전(Fire Safety)'으로 개정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TC 92의 향후 역할 및 전략을 재 조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ISO/TC 92는 크게 4개의 Sub-Committee(SC)와 2개의 직할 Working Group(WG)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SC 하부에는 4~6개의 WG이 구

성되어 상위 SC의 세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C하부의 각 WG는 5~15명 정도의 실무위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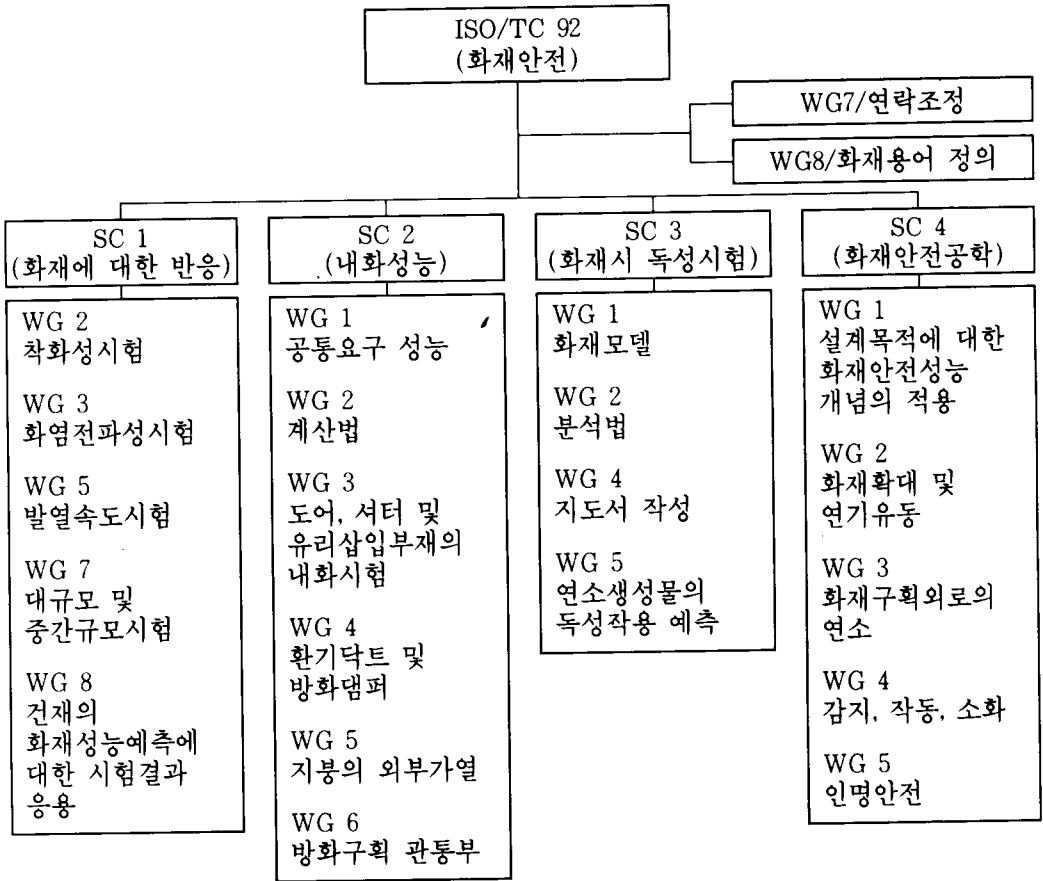
2개의 직할 WG는 SC 하부의 WG와 구분되는 것으로서, 각각 '연락조정' 및 '화재 용어 정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7년 11월 현재 ISO/TC 92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나. ISO/TC 92 미래 전략

1995년 10월 TC 92 동경총회에서는 ISO/TC 92의 미래전략에 관한 '결의안 225'를 채택하고 전담반(task group)을 구성하였다. 전담반의 수행 업무는

- ① 명칭변경 및 영역확대에 따른 TC 92의 10개년 전략을 12개월내 개발
- ② 건물과 건물 구성재에 국한된 시험을 벗어



[그림2] ISO/TC92 구성

나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 방법을 포괄하는 업무 수행 검토

③ TC 92의 역할 및 화재안전공학, 법규제정 관련 단체 등과의 관계설정을 위하여 ISO, IEC 내에서 광범위한 협의 수행으로 요약된다.

이러바탕으로 ISO/TC 92는 기존의 4개의 소위원회(SC)를 2개의 소위원회 즉, 제품의 화재위험분석/평가를 위한 '화재위험 SC'와 건물구조 전체를 평가하는 '화재안전공학 SC'로 재구성하여 1999년 1월경 출범될 예정이다.

5. 맺는말

세계는 이제 자기만의 규격, 제도의 틀속에서는 개인이든 단체든간에 더 이상 존립할 수 없

게 되었다. 각국의 서로 다른 여건 및 환경하에서 만들어진 규격을 국제규격으로 통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규격의 제정 및 개정, 국제단체의 결성 등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국의 상호 조율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금번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방재시험연구소가 ISO의 화재안전 기술위원회인 TC 92의 국내 간사기관으로의 지정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대 해왔던 ISO의 업무에 구체적으로 다가서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국내의 화재안전 관련 기술을 국제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FLX)